

News

KB, 금융권 첫 '탈석탄' 선언... "화력발전소 PF 참여 중단"

서울경제

KB금융그룹이 국내 금융권 최초로 '탈석탄 금융'을 선언... 기후 변화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KB국민은행 등 그룹 계열사가 모두 참여... 국내외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위한 신규 PF와 채권 인수에 대한 사업 참여를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 '파리기후협약' 등에 적극 동참한다는 방침

'빚투·영끌' 진정될까... 은행권 신용대출 옥죄기 본격화

뉴스1

금융권이 신용대출 '조이기'에 본격 나서... 일부 대출 상품의 우대금리를 축소하거나 신용대출 한도 축소에 들어가... 카카오뱅크는 직장인 대상 신용대출 최저금리를 연 2.01%에서 2.16%로... 우리은행은 우대금리폭을 0.4% 인하여 예정

회사채 쓸어 담는 은행... '일석이조' 셈법 분주

데일리안

국내 5대 은행들이 보유한 회사채가 65조원을 넘어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불안을 잠재우는데 민간 은행들이 동참해 달라는 정부의 요청에 호응 "정상적인 금융 시장 여건에서는 회사채 자산 확대에 따른 리스크가 크지 않지만, 코로나19가 유래를 찾기 힘든 특수 상황인 만큼 보수적인 운용이 필요한 시점"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토스 선불충전금, 은행에 신탁해야

머니S

간편 결제·송금업체들은 앞으로 고객이 예치한 선불충전금을 금융회사에 맡기거나 보험에 가입해야... 지급 불능상태 보호장치 마련... 신탁된 선불충전금은 국제 등 안전자산으로만 운용해야... 선불충전금 규모는 지난해 1조6700억원으로 확대...

카드업계 "보험료 카드 납부 허용해야"... 보험업계 "수수료 인하 없인 수용못해"

동아일보

보험사는 고객 부담 증가를 이유로 들며 수수료 인하 없이 보험료 카드 납부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 카드사는 고객 편의 내세워... "은행 적금처럼 만기에 이자를 더해 원금을 환급하는 생보사 장기보험 상품에 카드 수수료를 물릴 수 있느냐"

"건강보험 혜택 늘었는데... 실손보험 지출 오히려 증가"

세계일보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 범위를 확대했음에도 실손보험 지출과 환자 부담은 오히려 증가... 특히 의원의 실손 청구 비급여 진료비가 3년간 80% 가까이 급증... 실손보험의 위험손해율은 2017년 121.3%에서 지난해 133.9%로 뛰어...

증권사 신용용자 금리 낮춘다... 금융위, 개선방안 조만간 발표

헤럴드경제

증권사 신용용자 이자에 대한 정부의 개선방안이 조만간 발표... 증권사들에는 수익 감소 요인... "이미 상당한 규모의 신용용자가 쌓여있는 상태여서 고금리 유지는 증권사에만 유리한 불합리한 구조"

"빅히트 공모주 청약하러 가자" 증권사 계좌 잔고 역대 최대치

조선일보

빅히트의 일반 공모주 청약이 일주일 남짓 앞으로 다가와... 증권사 CMA 잔고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 증시 대기 자금도 증가세... 증권 계좌인 CMA 잔고는 지난 24일 현재 62조8000억원을 기록... 카카오게임즈, SK바이오팜 시기와 비교해도 각각 3조원, 7조원 많아...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